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7

제115호 2008년 7월 1일 화요일 · 매월 1회 1일 발행
음력 戊子年 權氏紀元 1079년 5월 28일 壬寅

발행인겸편집인 權五焄 · 인쇄인 洪政旭

발행소: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 경북안동시북문동24-1· 760-120
전화(054)857-7705 857-7713~7714 전송(054)857-7715
서울분사 : 서울종로구필운동288-1· 110-044 전송(02)738-8935
전화(02)723-4480· 732-9113· 735-7179
등록: 경북라-0105호[99.4.7.] e-mail : webmaster@andongkwon. or. kr

주간權琪奉 · 기자權奇允 / 편집고문權海玉 · 權宅鎭 · 權五庠 · 權赫來
편집위원權在琮 · 權海兆 · 權甲鉉 · 權五達 · 權容根 · 權奇奭客員)

종원회비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 1005-601-070006(주)안동권씨종보사

宗 說

기본을 망각하는 세상

지난 5월 11일 아침 나는 서울 시내버스 162번을 타고 보신각이 있는 종로통에서 안국동쪽의 신호를 받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여럿인 것으로 봐서 여느때와 다른 분위기였다. 눈여겨 살피니 종로 2가 쪽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길이 폐쇄되었다가 풀리는 참이었다. 밤을 새운 촛불집회가 아침까지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이어진 모양이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와락 상한 속이 머리끝을 밀어올렸다. 오전 열 시까지 계속되는 체증, 이것이 정상을 되찾자면 꼬리에 꼬리를 문 자동차의 행렬로 볼 때 2,30분은 족히 걸릴 것같았다. 이 무슨 당치 않은 일인가. 승객의 시간 낭비는 차치하고 석유수입 백프로인 우리의 경우 그 손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유 1배럴에 130불이 넘는 검은 황금을 공회전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얼마며 이에 부수하여 무산되는 가치는 또 얼마인가.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에 대한 불신은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나오게 했다. 이는 칭찬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 순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위가 그 초심을 떠나 성격을 달리하더니 얼토당토 아니하게 자동차노조를 포함한 금속노조까지 소고기 파업을 놓고 투표를 벌이고 있다. 나아가 시위현장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면서 아무것이나 주장하다가 수틀리면 정권퇴진 운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유모차를 대동한 시위까지 등장하는데 이러한 시위자는 아이에게 민주교육에 대한 실습을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인터뷰 장면까지 공영방송을 통하여 방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역주권의 포기로까지 보이던 소고기 협상이 정부의 실책임에는 틀림없는 것같다. 당국자가 여러 말로 변명해도 별 도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사결단하는 시위가 침묵하는 다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기화로 인터넷과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에서는 연일 '과잉진압、폭력경찰' 운운의 용어를 동원하여 여과없이 경찰을 두들기고 있다.

일이 이렇게 어수선하니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소 줄서기에서 앞선 사람들에 아랑곳없이 새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하고 큰소리치는 식이다. '차야 이리 올 테면 오려무나. 나는 내 길을 질러간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하기도 한다. 이런 형태로 요즘 우리사회의 기본질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 바로잡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이 나라 어른이니 한 말씀으로 가라앉혀야 하는데 이즘에는 그분의 말도 탄력을 잃고 있지 않은가. 국회의원이 나서 해결할 법도 한데 이들은 촛불의 혼란에 편승하여 이를 어부지리로 삼는 정파정치에 겨를이 없는 것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애국임을 알아야 할 것같다. 이는 지금 혼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문사門事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權在琮 편집위원

▲ 충주시 금릉동 광명산 묘하에서 총제공의 신도비가 제막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 개성을 관광한 권재종 편집위원이 박연폭포를 배경으로 서 있다.<관련기사 6면>

문충공 양촌선생의 표준영정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조선조 최초의 문형文衡으로 사범대동師範大東의 칭을 받은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 추밀공파 시조후 16世)선생의 국가 공인 표준영정標準影幀 2본을 제작하여 1본은 국립박물관에 기탁하여 영구보존케 하고 1본은 적의한 곳에 영당影堂을 세워 봉안코자 합니다. 역사적 인물의 국가표준영정은 각급 교과서、사전류 등 서적 출판물에 활용 등재되고 화폐、우표 등의 도안으로도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퇴계、율곡、이순신 장군상이 모두 표준영정입니다.

담임화가 : 국가표준영정 7인과 전통인물화의 명장 동강東江 권오창權五昌 화백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제작기간 : 당국의 심사를 거치기까지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되나 이를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모금 목표액 : 5천만원. 모금은 10만원 이상부터 받으며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목표액을 초과하면 이를 후일의 영당건립기금으로 적립할 것입니다. 양촌선생의 후손과 문중은 물론 방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양촌선생기념사업회 02) 735-7179

입금계좌 : 농협 003-12-112976 권오훈

양촌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權五容

입금 현황

안동권씨종보사 편집인 권오훈權五焄 금 500만원
안동권씨안숙공종회장권병홍權炳洪금 10만원
김포시 김포2동권태명權泰明금 10만원
양촌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권오용權五容 금 100만원
성남시 분당구권중희權重熙금 10만원
권태진금 10만원
구리시 인창동 권영환금 10만원
수원 송죽 통덕랑공종회권영갑權寧甲금 10만원
부산 금정구 대종회 원임권세만權世萬금 10만원
부산 기장권만호權萬浩금 20만원
강서구 개화동 권영우權寧禹 금 5만원
안동권씨안기동화수회 금 10만원
서울 도봉구 창동 권기붕權琪奉 금 10만원
서울 도봉구 쌍문동 권오필權五泌 금 10만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권오규權五ㅎ 금 10만원
경기 의왕시내손동 권선군 금 10만원
울산시 중구오정동 권일수 금 10만원
충남 보령시 대천동 보령중친회(권영주) 금 30만원
경남 김해시 동상동 권동기權東基 금 10만원
서울 강서구 신정6동 권오범權五範 금 20만원
무주군 무주읍 어초공종중 권경진權景振 금 10만원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권순무權純武 금 10만원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권원희權元喜 금 10만원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권영진權寧振 금 10만원
광명시 철산1동(삼교문중회장) 권중업權重業금 10만원
김제시 진봉면 신포리권영환權寧煥금 10만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권태의權泰義금 20만원
대구 남구 대명1동권영록權寧祿금 10만원
서울강동구 명일동 권혁준금 10만원
고양시권오갑權五甲금 10만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권태완權泰完 금 100만원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권대길權大吉금 10만원
신한은서울태평로 파이낸셜센터지점 권오현 금 10만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권태웅權泰雄금 20만원
봉례공 신철원문중권재희權載喜금 10만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권순무權純武금 10만원
일본 중부지구종친회 권태수權泰洙 금 100만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 權赫殷금 10만원
충남 서천군 한산면권용표權龍杓금 10만원
전북 김제시 신풍동 서령공종중금 10만원
부천시 오정동 권영환금 10만원
충남 청양 권영오금 10만원
경기 양주시 익명인금 10만원
충남 연기군 전동면권용근權容根금 50만원
서울 종로구 원서동권대성權大成금 10만원
대구 동구 괴정동 권혁길금 10만원
2008년 6월 20일 현재 합계 1,315만원